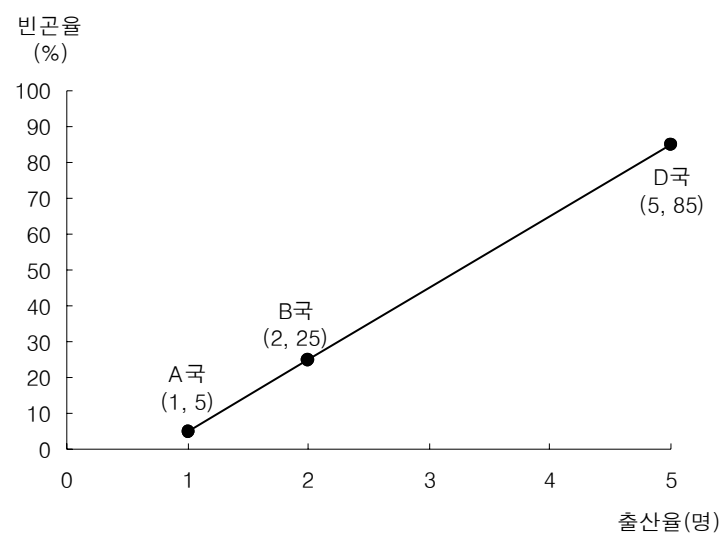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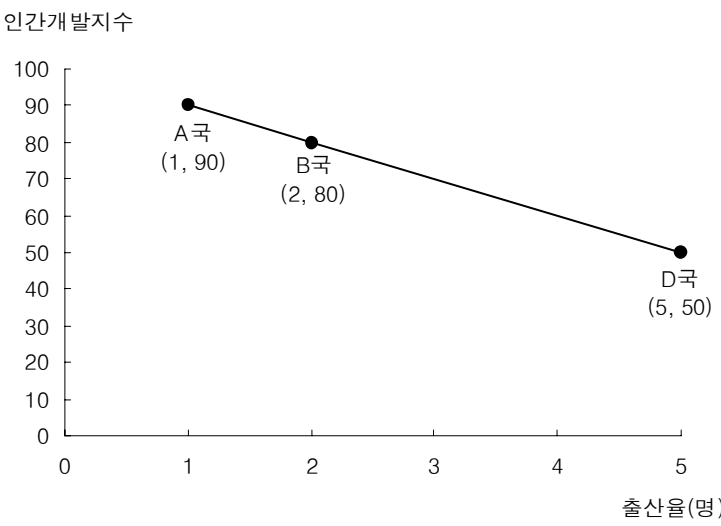


문 1. 다음 <그림>은 A, B, C, D국의 출산율과 빈곤율 간의 관계 및 출산율과 인간개발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다음 <그림>에서 출산율이 3.7명인 C국의 빈곤율과 인간개발지수를 구하면?

<그림 1> 출산율과 빈곤율 간의 관계



<그림 2> 출산율과 인간개발지수 간의 관계



	빈곤율	인간개발지수
①	59 %	62
②	59 %	63
③	60 %	62
④	60 %	63
⑤	60 %	64

문 2. 다음 <표>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조달 내역을 정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해석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조달 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중앙당 지원금	84,100 (36.7)	53,300 (29.7)	75,700 (36.6)	15,100 (7.0)	114,700 (32.3)
후원금	127,100 (55.4)	116,000 (64.7)	124,200 (60.2)	182,800 (84.8)	230,100 (64.9)
기타 정치자금	18,000 (7.9)	9,900 (5.6)	6,700 (3.2)	17,700 (8.2)	9,900 (2.8)

※ ()안의 숫자는 당해 연도 총 정치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보 기>

1996년 이후 총 정치자금 대비 후원금 비율이 50 % 이상인 것으로 보아,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 조달에서 중앙당 지원금보다는 후원금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ㄱ) 1999년에는 후원금 비율이 85 %에 근접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ㄴ) 총 정치자금 중 중앙당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6년과 2000년을 제외하고는 30 %를 밑돌았다. 한편, (ㄷ) 후원금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해에는 기타 정치자금이 감소한 반면, 후원금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해에는 기타 정치자금이 증가하였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문 3. 다음 <표>는 국방비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표 1〉 국가별 국방비 현황

국가	GDP (억\$)	국방비 (억\$)	GDP 대비 국방비 (%)	병력 (천명)	1인당 군사비 (\$)
A	92,000	2,831	3.1	1,372	1,036
B	43,000	404	0.9	243	319
C	19,000	311	1.6	333	379
D	14,000	379	2.7	317	640
E	11,000	568	5.2	1,004	380
F	14,000	369	2.6	212	628
G	2,830	54	1.9	71	148
H	7,320	399	5.5	2,820	32
I	990	88	8.9	174	1,465
J	840	47	5.6	73	1,174
K	150	21	14.0	1,055	98

〈표 2〉 한국의 연도별 국방비

(단위: 억원, %)

연도 구분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국방비	66,378	110,744	138,000	137,490	144,774	153,884
재정 대비 국방비 구성비	24.2	21.3	18.3	16.4	16.3	15.5
GDP 대비 국방비 구성비	3.7	3.1	2.9	2.8	2.7	2.6

〈표 3〉 한국의 연도별 국방비 구성

(단위 : 억원, %)

연 도	국방비		경상운영비			전략투자비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구성비	금 액	증가율	구성비
1995	110,744	9.9	71,032	9.9	64.1	39,712	10.0	35.9
1996	122,434	10.6	79,772	12.3	65.2	42,662	7.4	34.8
1997	137,865	12.6	86,032	7.8	62.4	51,833	21.5	37.6
1998	138,000	0.1	87,098	1.2	63.1	50,902	- 1.8	36.9
1999	137,490	- 0.4	85,186	- 2.2	62.0	52,304	2.8	38.0
2000	144,774	5.3	91,337	7.2	63.1	53,437	2.2	36.9
2001	153,884	6.3	101,743	11.4	66.1	52,141	- 2.4	33.9

<보 기>

- ㄱ. 국방비가 많은 나라일수록 1인당 군사비가 높다.
- ㄴ. 한국의 2001년도 국방비와 경상운영비 모두 전년대비 증가했으나 전략투자비는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 ㄷ. 1998 ~ 2001년 사이에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이 전년대비 높은 연도에는 경상운영비의 증가율도 전년대비 높다.
- ㄹ. 1990년 이후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구성비와 재정 대비 국방비 구성비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 ㅁ. GDP 대비 국방비의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1인당 군사비가 높다.

- ① $\neg$, $\vdash$
 ② $\neg$, $\Box$
 ③ $\bot$, $\vdash$, $\exists$
 ④ $\bot$, $\exists$, $\Box$
 ⑤ $\vdash$, $\exists$, $\Box$

문 4. 다음 <표>는 전체 인구를 유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및 노인인구로 구분하여 인구구성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표〉 인구구성비 추이

(단위 : %)

구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30년
유년 인구비	전국	42.5	34.0	25.6	21.1	19.1	16.3	13.9	12.6	11.2
	서울	36.3	31.3	24.7	18.6	16.8	14.7	13.4	12.4	10.5
	인천	39.8	31.9	27.1	23.4	20.2	16.5	13.8	12.7	11.4
	울산	40.2	36.2	30.1	25.1	21.9	17.4	13.9	12.4	11.2
	경기	42.9	32.7	26.8	24.1	21.5	18.1	15.4	13.9	12.2
	충남	45.9	35.6	24.3	20.1	18.8	16.3	13.8	12.4	11.5
	전남	46.8	38.9	25.8	20.0	18.4	13.9	11.3	9.2	9.1
생산가능인구비	전국	54.4	62.2	69.3	71.7	71.8	72.8	73.2	71.7	64.7
	서울	62.1	66.2	71.8	76.1	76.1	75.9	74.6	72.5	66.9
	인천	58.0	65.2	68.9	71.2	72.9	75.0	75.5	73.7	64.7
	울산	56.4	61.0	66.7	70.9	72.9	75.7	76.8	74.6	64.9
	경기	54.0	63.6	68.8	70.2	71.5	73.4	74.6	73.7	66.7
	충남	50.3	58.9	67.8	68.0	66.9	68.3	69.7	69.5	64.2
	전남	48.9	55.6	66.4	66.6	64.1	64.8	65.6	64.9	55.7
노인 인구비	전국	3.1	3.8	5.1	7.2	9.1	10.9	12.9	15.7	24.1
	서울	1.7	2.5	3.5	5.3	7.1	9.4	12.0	15.1	22.6
	인천	2.2	2.9	4.0	5.5	6.9	8.5	10.6	13.6	23.9
	울산	3.5	2.9	3.1	4.0	5.2	6.9	9.3	13.0	23.9
	경기	3.0	3.7	4.5	5.7	7.1	8.5	10.0	12.4	21.1
	충남	3.8	5.5	7.9	11.9	14.4	15.5	16.5	18.0	24.3
	전남	4.3	5.5	7.9	13.4	17.5	21.3	23.2	25.9	35.2

※ 1) 고령화사회: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7% 이상 14% 미만

고령사회 :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14 % 이상 21 % 미만

초고령사회: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21% 이상

$$2) \text{인구부양비} = \frac{\text{유년인구} + \text{노인인구}}{\text{생산가능인구}}$$

$$\text{유년부양비} = \frac{\text{유년인구}}{\text{생산가능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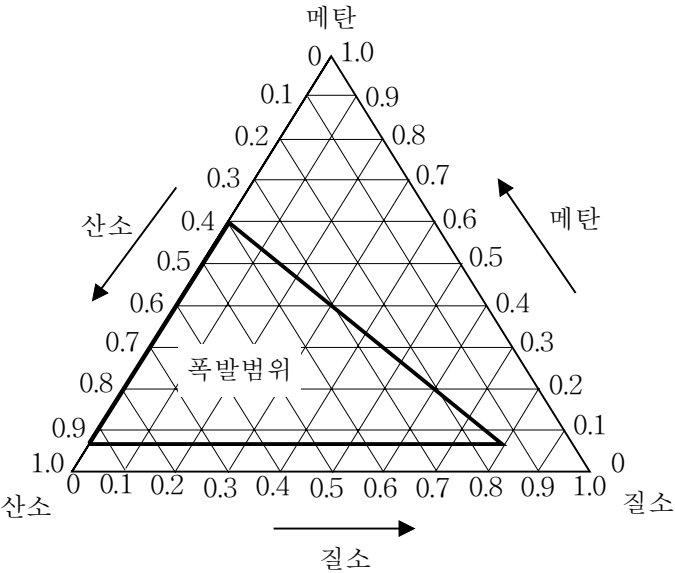
$$\text{노년부양비} = \frac{\text{노인인구}}{\text{생산가능인구}}$$

- ① 2010년에는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 지역이 처음으로 발생한다.
- ② 2030년의 전국 노년부양비는 0.35를 넘어선다.
- ③ 2005년의 전국 유년인구비는 1970년 전국 유년인구비의 절반 이하이다.
- ④ 전국 인구부양비는 2030년이 가장 높다.
- ⑤ 2005년에 노년부양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이다.

- 〈표〉 통합기술 분야의 세부기술에 대한 그룹별 기술가치 평가점수
(1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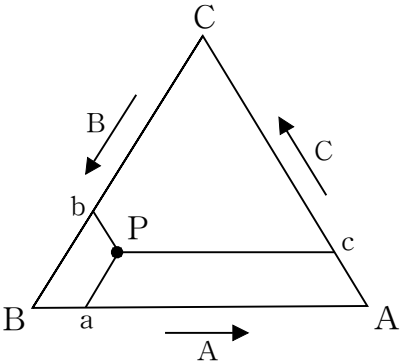
문 7. 질소, 산소, 메탄으로 구성된 혼합물은 어느 조성 범위에서 불씨가 존재하면 폭발할 수 있다. 다음 <그림>에서 굵은 선으로 표시한 삼각형 안의 영역이 폭발범위라면, 혼합물의 조성비 중 폭발범위 안에 있는 것은?

<그림> 질소, 산소, 메탄으로 구성된 혼합물의 삼각도표



<삼각도표의 독해>

세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의 조성을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삼각도표가 있다. 다음 삼각도표에서 혼합물 P는 물질 A, B, C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성비는 각각 a, b, c이다.



	질소	산소	메탄
①	0.1	0.3	0.6
②	0.2	0.3	0.5
③	0.3	0.2	0.5
④	0.4	0.3	0.3
⑤	0.5	0.2	0.3

문 8. 특허출원 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음 <표>는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세 가지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면당 추가료와 청구항당 심사청구료를 각각 구하면?

<계산식>

- 특허출원 수수료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출원료 = 기본료 + (면당 추가료 × 전체면수)
- 심사청구료 = 청구항당 심사청구료 × 청구항수

※ 특허출원 수수료는 개인은 70%가 감면되고, 중소기업은 50%가 감면되지만, 대기업은 감면되지 않음.

<표> 특허출원 수수료 사례

구분	사례 A	사례 B	사례 C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전체면수(장)	20	20	40
청구항수(개)	2	3	2
감면 후 수수료(원)	70,000	45,000	27,000

	면당 추가료	청구항당 심사청구료
①	1,000원	15,000원
②	1,000원	20,000원
③	1,500원	15,000원
④	1,500원	20,000원
⑤	1,500원	30,000원

문 9. 다음 <표>는 2004년도 대학유형별 시설현황을 조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2004년도 대학유형별 시설현황

대학유형	학교수 (개)	등록 학생수 (명)	교사시설 전체면적(m ²)		학생 1인당 교사시설 면적(m ²)		연구·부속 시설 및 기타시설면적 (m ²)	전체 건물면적 (m ²)
			기준	보유	기준	보유		
총 계	228	1,406,742	22,877,526	20,564,272	16.3	14.6	6,682,452	27,246,724
국립대학교	24	303,239	5,336,080	4,319,568	17.6	14.2	1,748,874	6,068,442
공립대학교	2	15,030	194,750	191,710	13.0	12.8	23,911	215,621
사립대학교	144	983,090	15,619,153	14,131,462	15.9	14.4	4,683,624	18,815,086
사립대학원 대학교	28	2,991	38,754	84,351	13.0	28.2	26,487	110,838
국립산업 대학교	8	35,518	647,298	537,750	18.2	15.1	59,486	597,236
사립산업 대학교	11	43,424	694,569	915,848	16.0	21.1	35,964	951,812
교육대학교	11	23,450	346,922	383,583	14.8	16.4	104,106	487,6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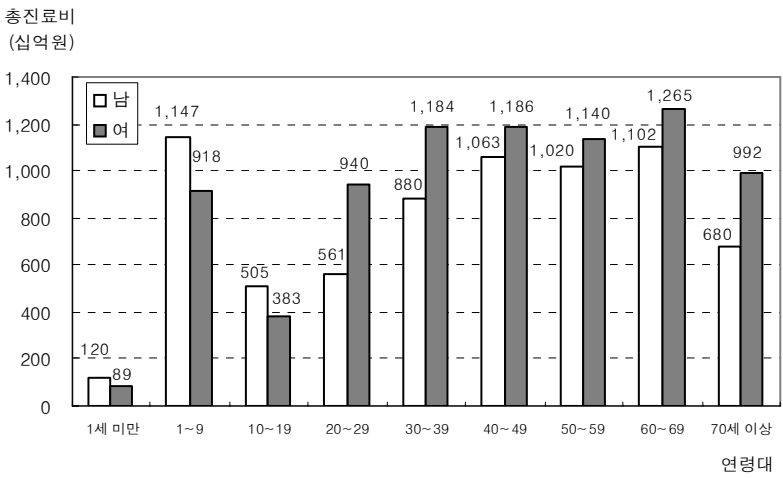
<보 기>

- ㄱ. 교사시설 전체면적에서, 기준면적과 보유면적 간의 차이가 가장 큰 대학유형은 국립대학교이다.
- ㄴ. 학생 1인당 교사시설 면적에서, 기준면적은 국립산업대학교가 가장 크고 보유면적은 사립대학원대학교가 가장 크다.
- ㄷ. 학교당 등록학생수는 공립대학교가 가장 많다.
- ㄹ. 사립대학교의 전체 건물면적은 다른 유형 대학들의 전체 건물면적을 모두 합한 것보다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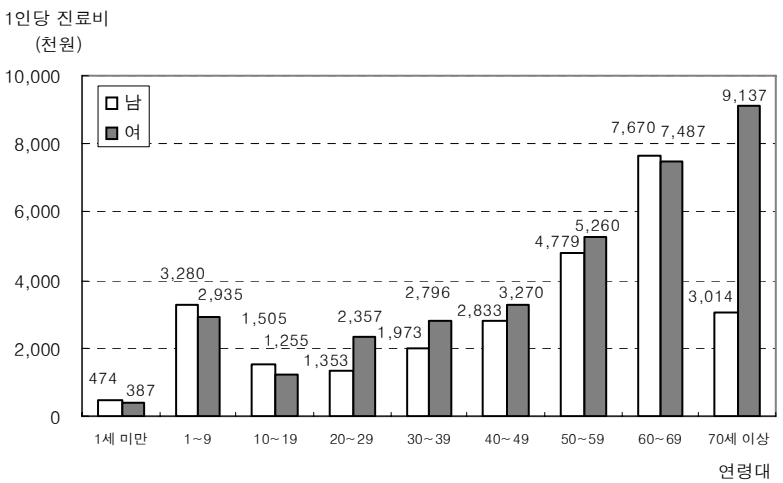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문 10. 다음 <그림>은 국민의료비 중 총진료비와 1인당 진료비에 대한 자료이다. 이를 해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림 1> 성별·연령대별 총진료비



<그림 2> 성별·연령대별 1인당 진료비



- ① 19세 이하 남성의 총진료비는 19세 이하 여성의 총진료비보다 많다.
- ② 20세 이상 여성의 총진료비는 20세 이상 남성의 총진료비보다 많다.
- ③ 20세 이상 남녀의 1인당 진료비는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한다.
- ④ 남녀간 총진료비의 차이는 20 ~ 29세에서 가장 크고, 1세 미만에서 가장 작다.
- ⑤ 70세 이상의 경우, 총진료비는 여성이 남성의 1.5배를 넘지 않고, 1인당 진료비는 여성이 남성의 3배를 넘는다.

문 11. 다음 <표>는 세 지역에서 평상시의 미생물 밀도와 황사 발생시의 미생물 밀도를 미생물 종류별로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평상시와 황사 발생시의 미생물 밀도

구 분		미생물 밀도(개체/mm ³)	
		평상시	황사 발생시
A지역	미생물X	270	1,800
	미생물Y	187	2,720
	미생물Z	153	2,120
B지역	미생물X	40	863
	미생물Y	45	1,188
	미생물Z	38	1,060
C지역	미생물X	98	1,340
	미생물Y	86	1,620
	미생물Z	77	1,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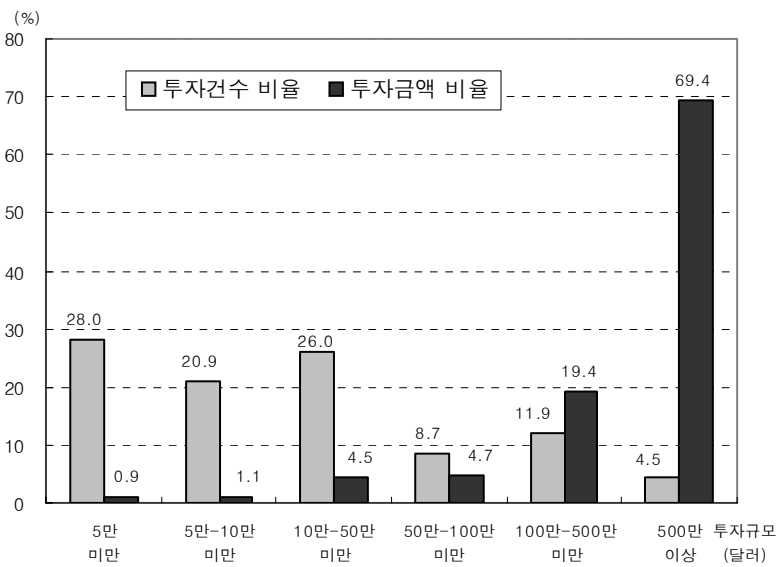
<보 기>

- ㄱ. 미생물 종류에 관계없이 평상시 미생물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 황사 발생시에도 미생물 밀도가 가장 낮다.
- ㄴ. 지역에 관계없이 미생물X는 다른 미생물에 비해 평상시와 황사 발생시 밀도 차이가 가장 크다.
- ㄷ. 황사 발생시 미생물Y의 밀도를 평상시와 비교해 볼 때, 증가율이 가장 큰 곳은 B지역이다.
- ㄹ. 황사 발생시에는 지역과 미생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평상시보다 미생물 밀도가 높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문 12. 다음 <그림>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투자건수 비율과 투자금액 비율을 투자규모별로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그림> 투자규모별 투자건수 비율과 투자금액 비율



※ 1) 투자규모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건당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함.

2) 투자건수 비율(%) = $\frac{\text{투자규모별 외국인 직접투자 건수}}{\text{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건수}} \times 100$

3) 투자금액 비율(%) = $\frac{\text{투자규모별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 합계}}{\text{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 합계}} \times 100$

- ① 투자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인 투자금액 비율은 85 % 이상이다.
- ② 투자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인 투자건수는 5만 달러 미만의 투자건수보다 적다.
- ③ 투자규모가 50만 달러 미만인 투자건수 비율은 70 % 이상이다.
- ④ 투자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인 투자건수는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건수의 25 % 이상이다.
- ⑤ 투자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 500만 달러 미만인 투자금액 비율은 50만 달러 미만의 투자금액 비율보다 크다.

문 13. 다음 <표>는 각국의 선거제도유형, 정부형태 및 분권화지표를 조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각국의 선거제도유형, 정부형태 및 분권화지표

국가	선거제도유형	정부형태	분권화지표
A	소선거구제	단일정부	0.09
B	소선거구제	연방정부	0.19
C	중선거구제	단일정부	0.13
D	중선거구제	단일정부	0.15
E	중선거구제	연방정부	0.20
F	중선거구제	연방정부	0.21
G	대선거구제	단일정부	0.18
H	대선거구제	단일정부	0.23
I	대선거구제	연방정부	0.26
J	비례대표제	단일정부	0.28
K	비례대표제	연방정부	0.45
L	비례대표제	연방정부	0.31
M	비례대표제	연방정부	0.35

- ※ 1) 분권화지표 = $\frac{\text{지방정부의 지출액}}{\text{지방정부의 지출액} + \text{중앙정부의 지출액}}$
- 2) 분권화지표 값이 클수록 분권화가 더 잘 되어 있음.
- 3) 선거구의 크기는 소선거구제 < 중선거구제 < 대선거구제 < 비례대표제 순임.

<보 기>

- ㄱ. 단일정부 국가 중에서 선거구의 크기가 큰 선거제도를 채택한 국가일수록 분권화가 더 잘 되어 있다.
- ㄴ.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단일정부 국가가 대선거구제를 채택한 연방정부 국가보다 분권화가 더 잘 되어 있다.
- ㄷ.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모든 국가가 대선거구제를 채택한 모든 국가보다 분권화지표 값이 작다.
- ㄹ. 선거제도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연방정부 국가가 모든 단일정부 국가보다 분권화지표 값이 크다.
- ㅁ.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가 대선거구제를 채택한 국가보다 지방정부 지출액이 많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ㅁ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문 14. 다음 <표>는 2006년도 경기전망을 나타낸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표>에서 나타나는 경우보다 2%p씩 상승하는 경우 경제성장률의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면?

<표> 2006년도 경기전망

경제성장률(확률변수)	확률
5 %	0.2
15 %	0.4
20 %	0.4

- ※ 1) 기대값 = (확률변수 × 확률)의 합
- 2) 분산 = [(확률변수 - 기대값)² × 확률]의 합
- 3) 분산은 확률변수들이 기대값을 중심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값이므로 확률변수들이 동일한 값만큼 더해져서 증가했을 경우(즉, 확률변수에 상수를 더하는 경우), 분포의 분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기대값	분산
①	15 %	0.003
②	15 %	0.012
③	17 %	0.003
④	17 %	0.012
⑤	18 %	0.003

문 15. 다음 <표>는 신체질량지수에 의한 비만도와 표준체중법에 의한 비만도에 관한 것이다. A씨는 신장이 170 cm, 체중이 86.7 kg이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 1〉 신체질량지수에 의한 비만도 판정과 암 발생률
(단위: %)

비만도 \ 판정 \ 암 종류		위암	대장암	폐암	식도암
18.5 미만	저체중	15.8	13.5	17.2	9.7
18.5 ~ 23 미만	정상	14.4	11.3	16.3	10.8
23 ~ 25 미만	과체중	15.3	13.4	17.6	12.7
25 이상	비만	23.9	27.6	19.2	14.1

※ 신체질량지수에 의한 비만도 = $\frac{\text{체중(kg)}}{[\text{신장(m)}]^2}$

〈표 2〉 신장별 표준체중식

신장(cm)	표준체중(kg)
150 미만	$[\text{신장(cm)} - 100] \times 1.0$
150 ~ 160 미만	$[\text{신장(cm)} - 150] \div 2 + 50$
160 이상	$[\text{신장(cm)} - 100] \times 0.9$

〈표 3〉 표준체중법에 의한 비만도 판정

비만도(%)	판정
90 미만	저체중
90 ~ 110 미만	정상
110 ~ 120 미만	과체중
120 ~ 130 미만	비만
130 이상	병적비만

※ 표준체중법에 의한 비만도 = $\frac{\text{현재체중(kg)}}{\text{표준체중(kg)}} \times 100$

- ① 신체질량지수에 의한 비만도 판정에 따르면, A씨가 속한 집단의 대장암 발생률은 위암 발생률보다 높다.
- ② A씨가 신장의 변화 없이 16.7 kg을 감량할 때 신체질량지수에 의한 비만도 판정에 따르면, A씨가 속하는 집단의 식도암 발생률은 12.7%이다.
- ③ 신체질량지수에 의한 비만도 판정에 따르면, ‘비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속한 집단의 대장암 발생률은 ‘저체중’으로 판정된 사람이 속한 집단의 대장암 발생률의 2배 이상이다.
- ④ A씨의 표준체중법에 의한 비만도는 $[86.7 \div \{(170 - 100) \times 0.9\}] \times 100$ 이다.
- ⑤ 표준체중법에 의한 비만도 판정에 따르면, A씨는 ‘비만’으로 판정된다.

문 16. 다음 <표>는 성별에 따른 경제활동동향을 비교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단위: %)

구분 연도	전 체		여 성		남 성	
	참가율	실업률	참가율	실업률	참가율	실업률
1996	59.0	5.2	42.8	3.5	76.4	6.2
1997	56.6	4.0	41.9	2.4	72.3	5.0
1998	60.0	2.4	47.0	1.8	74.0	2.9
1999	61.9	2.1	48.4	1.7	76.4	2.3
2000	61.0	4.1	48.6	3.3	74.2	4.7
2001	61.3	3.8	49.2	3.1	74.2	4.3
2002	61.9	3.1	49.7	2.5	74.8	3.5

〈표 2〉 가구주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단위: %)

구분 연도	전 체		여 성		남 성	
	참가율	실업률	참가율	실업률	참가율	실업률
1996	84.5	4.0	56.2	3.1	90.4	4.2
1997	84.9	3.0	62.5	2.0	89.9	3.1
1998	88.9	1.6	72.1	1.3	92.8	1.6
1999	88.3	1.2	70.0	1.5	92.6	1.2
2000	84.3	2.9	66.6	2.7	89.1	2.9
2001	83.6	2.7	65.5	2.7	88.7	2.6
2002	83.4	2.1	64.6	2.5	88.9	2.1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비
(단위 : %)

구분 성별 연도		비임금 근로자	자영 업주	무급 가족 종사자				
					임금 근로자	상용	임시	일용
여성	2000	38.5	19.2	19.3	61.5	19.1	28.5	13.9
	2001	37.6	19.5	18.1	62.4	20.7	28.8	12.9
	2002	36.5	19.4	17.1	63.5	21.3	29.1	13.1
남성	2000	35.7	33.7	2.0	64.3	38.1	17.1	9.1
	2001	36.0	34.1	1.9	64.0	38.6	17.0	8.4
	2002	35.7	34.0	1.7	64.3	37.8	17.0	9.5

-〈보기〉-

- ㄱ. 1996 ~ 2002년 사이에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 ㄴ. 1997 ~ 2002년 사이에 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해에는 실업률이 감소하였다.
- ㄷ. 1999년 이후 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 ㄹ. 2000 ~ 2002년 사이에 남녀 모두 임시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 비율의 합이 상용직 근로자의 비율보다 크다.
- ㅁ. 2000 ~ 2002년 사이에 취업자 중 자영업주의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반면,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

- ① $\neg, \perp, \square$ ② $\neg, \sqsubset, \sqsupset$
 ③ $\neg, \sqsupset, \square$ ④ $\sqsubset, \sqsupset, \sqsupset$
 ⑤ $\sqsupset, \sqsupset, \square$

문 17. 다음 <표>는 어느 회사의 3년간 제조원가와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여 A, B, C, D에 해당하는 것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제조원가와 구성비
(단위 : 천원, %)

연도 구분 비용항목	1998		1999		2000	
	제조원가	구성비	제조원가	구성비	제조원가	구성비
총제조원가	1,150,674	100.00	1,379,775	100.00	1,709,758	100.00
A	150,741	13.10	179,893	13.04	222,674	13.02
B	709,753	61.68	835,152	60.53	1,035,481	60.56
C	87,057	7.57	119,232	8.64	154,935	9.06
D	3,876	0.34	8,992	0.65	12,615	0.74
수도광열비	23,954	2.08	31,078	2.25	41,845	2.45
감가상각비	47,322	4.11	54,884	3.98	67,614	3.96
기타 경비	127,971	11.12	150,544	10.91	174,594	10.21

<보 기>

- 보험료는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총제조원가 대비 보험료 구성비가 1998년의 2배 이상이 되었다.
- 2000년 재료비는 1999년보다 약 24 %가 증가하였지만, 총제조원가 대비 재료비 구성비의 증가폭은 1%p 미만이었다.
- 2000년 노무비는 1999년보다 증가했으나, 총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999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 2000년 외주가공비는 1998년의 약 1.8배가 되었고, 총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도 1998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 | | A | B | C | D |
|---|-------|-----|-------|-------|
| ① | 외주가공비 | 재료비 | 노무비 | 보험료 |
| ② | 재료비 | 노무비 | 보험료 | 외주가공비 |
| ③ | 노무비 | 재료비 | 외주가공비 | 보험료 |
| ④ | 재료비 | 노무비 | 외주가공비 | 보험료 |
| ⑤ | 노무비 | 재료비 | 보험료 | 외주가공비 |

문 18. 간지(干支)란 10천간과 12지신을 서로 조합한 것을 이르는 말이며, 연도를 표시하는데 이용된다.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신을 조합하면 갑자, 을축, 병인, ..., 임신, 계유, 갑술, 을해, 병자, ..., 임술, 계해의 60가지가 나오고 이는 60년을 주기로 반복된다. 다음 <표>에 기초하여 <제시문>의 (A), (B), (C)에 들어갈 연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10천간과 12지신

10천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12지신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제시문>

조선시대 봉당정치의 직접적인 발단은 을해년(1575년) 이조전랑직을 둘러싼 김효원과 심의겸의 반목에서 비롯하였다. 처음에는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으나 동인이 다시 강경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 분파되어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서인, 남인, 북인의 삼색이 형성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정권을 잡은 북인은 계해년(1623년) 인조반정에 의해 몰락하게 되고 봉당정치는 서인과 남인의 대결로 심화되었다. 두 차례의 예송과 경신환국을 거치면서 집권을 계속하던 서인은 이른바 (A) 기사환국으로 몰려나게 되고 남인이 다시 등용되었다. 그러나 숙종에 의하여 서인이 다시 등용되는 (B) 갑술환국이 벌어져, 남인은 재기불능의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 후 경종의 후사문제로 인한 (C) 신축옥사와 임인옥사가 일어나 노론의 김창집, 이건명 등이 대역죄로 몰려 죽으면서 노론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당쟁을 몸소 체험한 후 1724년에 왕위에 오른 영조는 ‘탕평책’을 내세워 재위 52년 동안 정쟁이 크게 완화되었다.

- | | (A) | (B) | (C) |
|---|-------|-------|-------|
| ① | 1688년 | 1693년 | 1722년 |
| ② | 1688년 | 1694년 | 1721년 |
| ③ | 1689년 | 1693년 | 1722년 |
| ④ | 1689년 | 1694년 | 1721년 |
| ⑤ | 1689년 | 1694년 | 1722년 |

문 19. 다음 <표>는 윗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매체 선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여 A, C, D, F, x 에 해당하는 것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매체 선택
(단위: %, 명)

구 분			커뮤니케이션 매체				응답자 수
			A	B	C	기타	
커 뮤 니 케 이 션 상 황	D	1차선택	4.1	42.1	47.2	6.6	1,011
		2차선택	14.6	52.0	24.0	9.4	821
	E	1차선택	3.0	41.2	49.4	6.4	1,011
		2차선택	17.5	49.0	23.2	10.3	811
	F	1차선택	4.4	79.6	11.9	4.1	1,011
		2차선택	42.8	20.7	21.8	14.7	647
	명절 인사	1차선택	4.5	x	y	3.2	1,011
		2차선택	14.7	39.8	24.3	21.2	815

※ 1) 커뮤니케이션 매체(A, B, C)의 종류: 전화, 문자메세지, 면대면
2) 커뮤니케이션 상황(D, E, F)의 종류: 부탁, 사과, 약속변경

<보 기>

- 부탁할 때에는 1차선택에 따르면, 전화나 문자메세지보다 면대면을 더 많이 이용한다.
- 약속변경을 할 때 1차선택에서는 전화를, 2차선택에서는 문자메세지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
- 명절인사를 할 때 B를 1차선택한 사람은 461명이다.
- 1차선택에 따르면, 사과할 때 문자메세지의 사용비율은 모든 매체와 상황의 조합 중에서 가장 낮다.

	A	C	D	F	x
① 면대면		문자메세지	약속변경	사과	44.2
② 문자메세지		면대면	부탁	약속변경	45.6
③ 전화		문자메세지	사과	약속변경	45.6
④ 전화		면대면	부탁	사과	45.6
⑤ 문자메세지		면대면	약속변경	부탁	44.2

문 20. 다음 <제시문>은 바이러스 V의 감염 여부와 시약 G의 반응 결과에 대한 조사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시약 G에 음성 반응을 보인 성인 중 바이러스 V의 감염자 비율’(A)과 ‘기대손실액’(B)을 구하면?

<제시문>

일반인을 바이러스 V 감염자와 비감염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감염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시약 G의 반응은 양성 또는 음성으로 나타난다.

전체 성인 중 바이러스 감염자의 비율은 40%이고, 전체 성인 중 시약에 양성 반응을 보인 비율은 20%이며, 바이러스 감염자 중 시약에 양성 반응을 보인 성인의 비율은 35%이다.

바이러스 감염자이면서 음성 반응을 보일 경우의 손실액은 200만원이고, 바이러스 비감염자이면서 양성 반응을 보일 경우의 손실액은 100만원이다.

※ 기대손실액 = (감염자이면서 음성 반응을 보일 경우의 성인비율) × (해당 손실액) + (비감염자이면서 양성 반응을 보일 경우의 성인비율) × (해당 손실액)

	(A)	(B)
① 26.0 %		58만원
② 26.0 %		140만원
③ 32.5 %		58만원
④ 32.5 %		140만원
⑤ 35.0 %		140만원

문 21. 다음 <표>는 자동차 변속기의 부문별 경쟁력점수를 국가별로 비교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자동차 변속기 경쟁력점수의 국가별 비교

국가 부문	A	B	C	D	E
변속감	98	93	102	80	79
내구성	103	109	98	95	93
소음	107	96	106	97	93
경량화	106	94	105	85	95
연비	105	96	103	102	100

※ 각국의 전체 경쟁력점수는 각 부문 경쟁력점수의 총합으로 구함.

<보 기>

- ㄱ. 전체 경쟁력점수는 E국보다 D국이 더 높다.
- ㄴ. 경쟁력점수가 가장 높은 부문과 가장 낮은 부문의 차이가 가장 큰 국가는 D이고, 가장 작은 국가는 C이다.
- ㄷ. C국을 제외한다면 각 부문에서 경쟁력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와 가장 낮은 국가의 차이가 가장 큰 부문은 내구성이고, 가장 작은 부문은 변속감이다.
- ㄹ. 내구성 부문에서 경쟁력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와 경량화 부문에서 경쟁력점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동일하다.
- ㅁ. 전체 경쟁력점수는 모든 국가 중에서 A국이 가장 높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문 22. 다음 <표>는 정책대상자 294명과 전문가 33명을 대상으로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만족도를 조사한 자료이다. 이들 자료에 근거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1> 정책대상자의 항목별 정책만족도

(단위 : %)

만족도 항목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의견수렴도	4.8	28.2	34.0	26.9	6.1
적절성	7.8	44.9	26.9	17.3	3.1
효과성	6.5	31.6	32.7	24.1	5.1
체감만족도	3.1	27.9	37.4	26.5	5.1

<표 2> 전문가의 항목별 정책만족도

(단위 : %)

만족도 항목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의견수렴도	3.0	24.2	30.3	36.4	6.1
적절성	3.0	60.6	21.2	15.2	-
효과성	3.0	30.3	30.3	36.4	-
체감만족도	-	30.3	33.3	33.3	3.0

- ※ 1) 만족비율 = ‘매우 만족’ 비율 + ‘약간 만족’ 비율
- 2) 불만족비율 = ‘매우 불만족’ 비율 + ‘약간 불만족’ 비율

- ① 정책대상자의 정책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비율은 불만족 비율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 ② 효과성 항목에서 ‘약간 불만족’으로 응답한 전문가 수는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정책대상자 수보다 많다.
- ③ 체감만족도 항목에서 만족비율은 정책대상자가 전문가보다 낮다.
- ④ 의견수렴도 항목에서 만족비율은 전문가가 정책대상자보다 높다.
- ⑤ 적절성 항목이 타 항목에 비해 만족비율이 높다.

문 23. 다음 <표>는 온실가스 감축시작년도에 따른 국가(지역)별 감축비용과 온실가스로 인한 예상손실액을 조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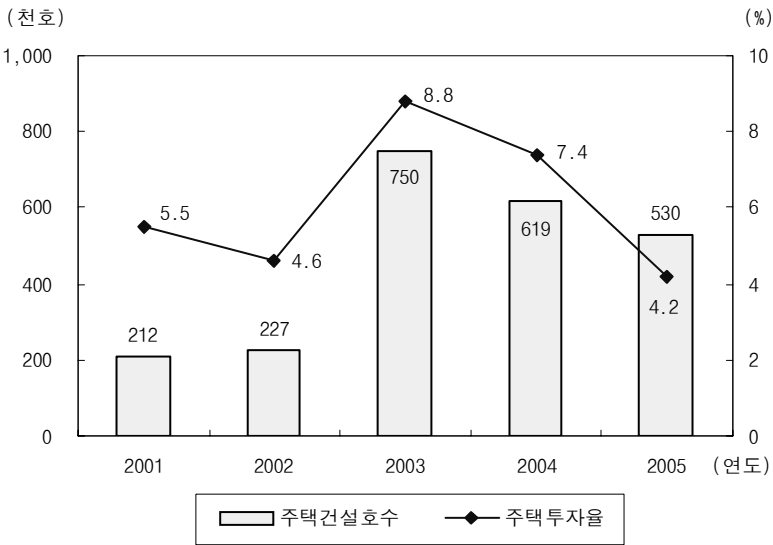
<표> 온실가스 감축시작년도에 따른 국가(지역)별
감축비용과 예상손실액
(단위 : 백만달러)

구분	온실가스 감축비용				온실가스로 인한 예상손실액			
	2005		2025		2005		2025	
연도	2050	2100	2050	2100	2050	2100	2050	2100
국가(지역)	2050	2100	2050	2100	2050	2100	2050	2100
일본	59.5	415.7	66.1	463.0	182.8	467.8	522.9	2,124.3
중국	22.6	81.2	12.9	90.4	35.7	91.3	102.1	414.9
기타 아시아 국가	12.3	8.9	13.7	95.7	37.8	96.7	108.1	439.3
미국	137.6	961.1	152.8	1,070.5	422.6	1,081.7	1,209.2	4,911.9
캐나다	5.5	38.5	6.1	42.9	16.9	43.4	48.5	197.1
유럽	16.0	111.8	17.8	124.6	49.2	125.9	140.7	571.7
라틴아메리카	108.0	754.0	119.9	839.8	331.6	848.6	948.6	3,853.4
아프리카	30.7	214.6	34.1	239.0	94.3	241.5	270.0	1,096.8
기타	49.2	344.0	54.7	383.1	151.2	387.2	432.7	1,758.2
전체	441.4	2,929.8	478.1	3,349.0	1,322.1	3,384.1	3,782.8	15,367.6

- ※ ‘기타 아시아 국가’는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의미함.
- ① 2050년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전체의 예상손실액은 온실가스 감축을 2005년에 시작할 경우 약 13억 2천만 달러가 될 것이고, 2025년에 시작할 경우 37억 8천만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 ② 2050년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은 온실가스 감축을 2005년에 시작할 경우 약 4억 4천만 달러가 될 것이고, 2025년에 시작할 경우에는 이보다 3천 6백만 달러 이상 더 소요될 것이다.
 - ③ 감축시작년도와 관계없이 온실가스 감축비용과 온실가스로 인한 예상손실액이 가장 큰 국가(지역)는 미국이다.
 - ④ 2100년을 기준으로 볼 때, 감축시작년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지역)에서 온실가스 감축비용은 온실가스로 인한 예상손실액보다 항상 적다.
 - ⑤ 일본, 중국 및 기타 아시아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은 감축시작년도가 2025년일 때보다 2005년일 때 더 적게 소요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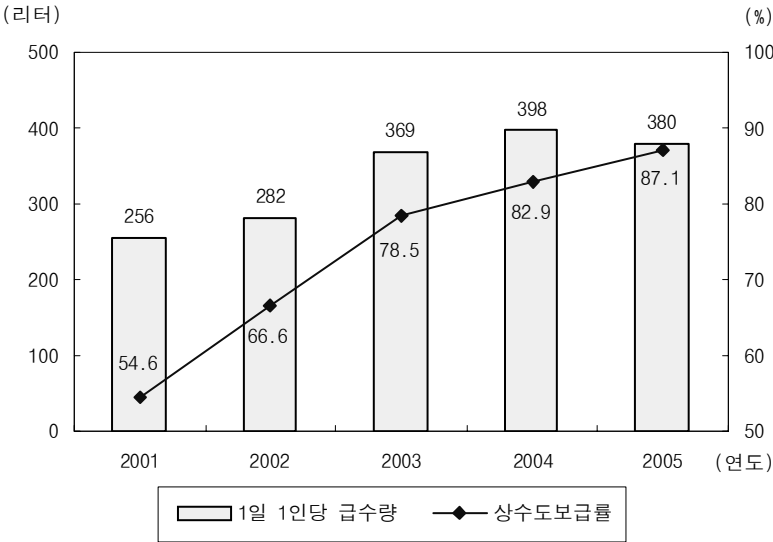
문 24. 다음 <그림>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주택건설과 상수도보급 현황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그림 1> 주택건설 현황



※ 주택투자율(%) = $\frac{\text{주택투자금액}}{\text{총투자금액}} \times 100$

<그림 2> 상수도보급 현황



- <보 기> —
- ㄱ. 주택투자금액은 2003년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하였다.
 - ㄴ. 주택투자율과 상수도보급률이 가장 높은 해는 2003년이다.
 - ㄷ. 1일 1인당 급수량의 전년대비 증가분이 가장 큰 해는 2003년이다.
 - ㄹ. 주택건설호수와 주택투자율은 2003년까지는 매년 증가하다가 2004년 이후 감소하였다.
 - ㅁ. 주택건설호수의 전년대비 증가분이 가장 큰 해는 2003년이다.

- ① ㄷ, ㄹ
- ② ㄷ, ㅁ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ㅁ
- ⑤ ㄴ, ㄹ, ㅁ

문 25. 다음 <보고서>는 2002년 통계활동현황조사에 대한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되지 않은 것은?

<보고서>

통계청이 작성한 「통계활동현황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2002년에 통계활동을 하고 있는 114개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공표하는 통계수는 424종으로 10년 전에 비하여는 80종, 6년 전에 비하여도 52종이 늘어났다. 그러나 통계인력은 5,038명으로 10년 전에 비하여 275명이 줄고, 6년 전에 비하여 569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인력 중에서 통계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은 전체의 58.1%에 그치고 있고, 통계기획·분석담당인력이 21.4%로 통계 1종당 2.5명에 불과하다. 통계 개선·개발에 대한 요구는 1997년 116건, 2000년 298건, 2002년 479건 등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나, 2000년 요구건수의 35.6%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 정규직·임시직 구성비

(단위: 명, %)

구분	2000년					2002년				
	통계인력	정규직	구성비	임시직	구성비	통계인력	정규직	구성비	임시직	구성비
계	4,809	4,706	97.9	103	2.1	5,038	4,615	91.6	423	8.4
중앙행정기관	3,339	3,294	98.7	45	1.3	3,416	3,104	90.9	312	9.1
지방자치단체	995	974	97.9	21	2.1	995	973	97.8	22	2.2
민간지정기관	475	438	92.2	37	7.8	627	538	85.8	89	14.2

② 통계전담 인력(2002년)

(단위: 명, %)

구분	통계인력	통계전담	구성비	타업무겸임	구성비
계	5,038	2,928	58.1	2,110	41.9
중앙행정기관	3,416	2,259	66.1	1,157	33.9
지방자치단체	995	422	42.4	573	57.6
민간지정기관	627	247	39.4	380	60.6

③ 요구통계 건수 및 반영건수

(단위: 건)

구분	1997년			2000년			2002년
	요구건수	반영	미반영	요구건수	반영	미반영	요구건수
계	116	59	57	298	192	106	479
중앙행정기관	94	52	42	231	143	88	411
지방자치단체	2	1	1	9	8	1	7
민간지정기관	20	6	14	58	41	17	61

④ 통계인력 구성비

(단위: 명, %)

구분	2000년					2002년				
	통계인력	기획분석	구성비	현장조사 자료처리 지원행정	구성비	통계인력	기획분석	구성비	현장조사 자료처리 지원행정	구성비
계	4,809	1,000	20.8	3,809	79.2	5,038	1,080	21.4	3,958	78.6
중앙행정기관	3,339	627	18.8	2,712	81.2	3,416	648	19.0	2,768	81.0
지방자치단체	995	112	11.3	883	88.7	995	109	11.0	886	89.0
민간지정기관	475	261	54.9	214	45.1	627	323	51.5	304	48.5

⑤ 통계수와 통계인력의 증감(2002년)

(단위: 종, 명)

구분	통계수 증감			통계인력 증감		
	1992년대비	1996년대비	2000년대비	1992년대비	1996년대비	2000년대비
계	80	52	25	-275	-569	229
중앙행정기관	16	9	15	-355	-668	77
지방자치단체	70	41	7	264	278	-
민간지정기관	-6	2	3	-184	-179	152

문 26. 다음 <표>는 6개국의 국방비와 연구개발투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여 다음 <표>의 A, B, C, D, E에 해당하는 국가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6개국 국방비와 연구개발투자 현황

구분 연도 국가	국민 1인당 국방비(\$)		국방비 (백만 \$)		연구개발비 (백만 \$)		연구개발비율 (%)	
	2000	2001	2000	2001	2000	2001	2000	2001
미 국	1,078	1,128	287,300	296,200	38,700	40,800	13.5	13.8
A	357	310	4,560	4,040	108	90	2.4	2.2
B	358	440	140,850	218,940	15,600	21,894	11.1	10.0
C	601	583	33,890	32,608	4,026	3,986	11.9	12.2
D	575	553	26,538	24,257	3,053	3,145	11.5	13.0
E	341	328	22,871	20,154	1,299	1,286	5.7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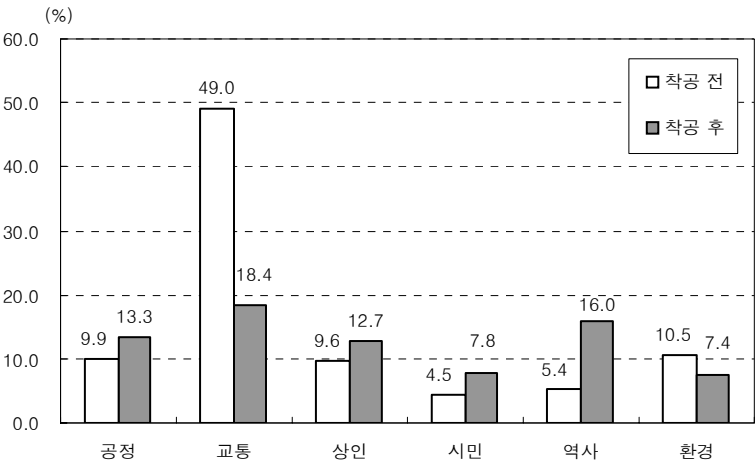
<보 기>

- 영국과 프랑스는 2000년에 비해 2001년에 국민 1인당 국방비가 감소하였으나, 연구개발비율은 증가하였다. - 러시아와 미국은 2000년에 비해 2001년에 국방비와 연구개발비 모두 증가하였다. - 스위스와 독일은 연구개발비율이 다른 네 개 국가들보다 낮다. - 영국과 독일은 2000년에 비해 2001년에 연구개발비는 감소했으나, 연구개발비율은 증가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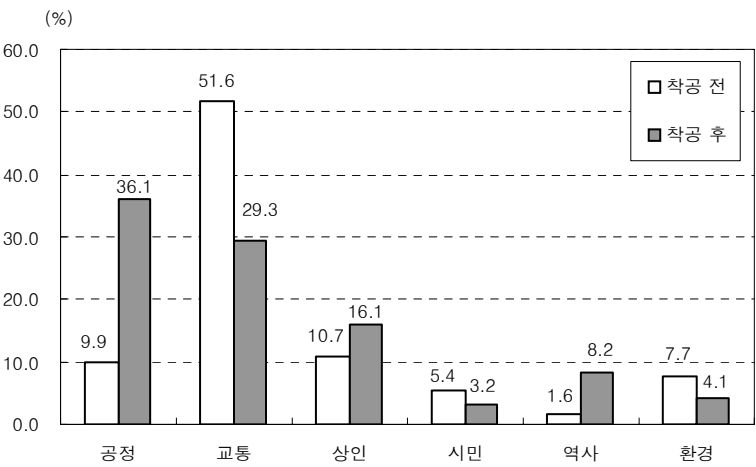
	A	B	C	D	E
① 독일	러시아	프랑스	영국	스위스	
② 스위스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③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④ 스위스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⑤ 러시아	스위스	영국	프랑스	독일	

문 27. 다음 <그림>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신문과 방송의 보도내용을 사업 착공 전후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 중 주요 분야 6개를 선택하여 작성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림 1> 착공 전후 주요 분야의 신문보도 비율



<그림 2> 착공 전후 주요 분야의 방송보도 비율



<보 기>

- ㄱ. 신문보도에서 착공 전에 가장 높은 보도비율을 보인 두 분야 모두 착공 후 보도비율이 감소했다.
- ㄴ. 교통은 착공 후에도 신문과 방송 모두에서 가장 많이 보도된 분야이다.
- ㄷ. 착공 전에 비해 착공 후 교통에 대한 보도비율의 감소 폭은 방송보다 신문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ㄹ. 착공 전 대비 착공 후 보도비율의 증가율이 신문과 방송 모두에서 가장 큰 분야는 역사이다.
- ㅁ. 착공 전 교통에 대한 보도비율은 신문보다는 방송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문 28. 다음 <표>는 향기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국적별 동향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표 1> 전체 향기관련 특허출원 동향

(단위: 건)

국적 \ 연도	1979 ~ 1990	1991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합계
내국인	11	23	8	12	35	46	59	60	49	303
외국인	22	34	7	14	24	36	32	34	47	250

<표 2> 기술별 향기관련 특허출원 동향

(단위: 건)

기술 \ 국적 \ 연도	1979 ~ 1990	1991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합계
향기 물질	내국인	2	6	3	2	4	4	2	3	28
	외국인	13	17	3	2	3	3	7	2	52
	소 계	15	23	6	4	7	7	9	5	80
향기 지속 기술	내국인	2	8	4	6	8	13	15	23	97
	외국인	3	9	2	2	4	14	9	10	66
	소 계	5	17	6	8	12	27	24	33	163
응용 제품	내국인	2	8	1	3	21	29	39	32	162
	외국인	5	5	2	9	17	18	13	21	120
	소 계	7	13	3	12	38	47	52	53	282
기타	내국인	5	1	0	1	2	0	3	2	16
	외국인	1	3	0	1	0	1	3	1	12
	소 계	6	4	0	2	2	1	6	3	28

<표 3> 향기 지속 기술 특허출원 동향

(단위: 건)

구분	방향제코팅 기술	분산 기술	제조 공정	기타	합계
내국인	37	15	10	35	97
외국인	22	14	14	16	66

<보 기>

- ㄱ. 1998년 이후 전체 향기관련 내국인의 특허출원건수는 외국인의 특허출원건수보다 많다.
- ㄴ. 향기 지속 기술 특허출원에서 방향제코팅 기술의 특허출원건수가 전체 향기 지속 기술 특허출원건수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ㄷ. 1997년 이후 전체 향기관련 특허출원건수가 전년대비 100% 이상 증가한 적이 있다.
- ㄹ. 1997년 이후 향기관련 응용제품의 전년대비 특허출원 건수의 증가율은 1998년에 가장 높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29. 다음 <표>는 국가별 생산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과 단위노동비용지수를 조사한 것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표> 국가별 생산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과 단위노동비용지수

구분 연도 국가	시간당 임금(\$)				단위노동비용지수			
	1998	1999	2000	2001	1998	1999	2000	2001
독 일	26.28	23.66	22.99	22.86	90.3	86.6	76.9	76.2
일 본	18.29	20.89	22.00	19.59	93.1	105.7	100.4	93.6
미 국	18.64	19.11	19.72	20.32	92.4	91.1	91.7	91.4
영 국	16.75	17.04	20.24	18.35	105.2	102.8	98.4	95.5
프랑스	17.49	17.17	15.66	15.88	83.2	79.6	63.2	62.5
스웨덴	22.02	21.61	16.45	16.14	66.6	64.3	53.0	48.2
한 국	5.67	7.35	8.48	8.09	63.7	71.7	70.2	64.7

※ 단위노동비용지수는 국가별로 해당 국가의 1992년 단위노동비용을 100으로 하여 각 연도의 비교치를 제시한 것임.

<보 기>

- ㄱ. 1998년과 비교하여 2001년에 시간당 임금이 감소한 국가는 모두 유럽에 위치하고 있다.
- ㄴ. 2000년에 생산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는 독일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한국이다.
- ㄷ. 각각의 국가에서 연도별 시간당 임금과 단위노동비용의 증감은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ㄹ. 1998년에 비해 2001년에 단위노동비용이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한 국가는 한국이며,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한 국가는 스웨덴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문 30. 다음 <표>는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표 1> 전체 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

구분 연도	발 생		검 거		검거율 (%)	검거인원 (명)
	건 수	지 수	건 수	지 수		
1999	1,732,522	100	1,651,896	100	95.3	2,081,797
2000	1,867,882	108	1,664,441	101	89.1	2,126,258
2001	1,985,980	115	1,763,346	107	88.8	2,234,283
2002	1,977,665	114	1,826,852	111	92.4	2,267,557
2003	2,004,329	116	1,776,049	108	88.6	2,184,975

<표 2> 재산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

구분 연도	발 생		검 거		검거율 (%)	검거인원 (명)
	건 수	지 수	건 수	지 수		
1999	319,627	100	272,662	100	85.3	350,727
2000	368,404	115	235,117	86	63.8	307,401
2001	392,473	123	247,079	91	63.0	324,201
2002	415,572	130	323,789	119	77.9	432,989
2003	470,826	147	325,928	120	69.2	428,107

<표 3> 강력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

구분 연도	발 생		검 거		검거율 (%)	검거인원 (명)
	건 수	지 수	건 수	지 수		
1999	289,801	100	285,721	100	98.6	480,944
2000	338,243	117	314,229	110	92.9	531,245
2001	342,249	118	315,912	111	92.3	533,287
2002	292,528	101	276,222	97	94.4	456,996
2003	305,502	105	284,950	100	93.3	462,430

※ <표>의 ‘지수’는 1999년의 ‘건수’를 100으로 하여 계산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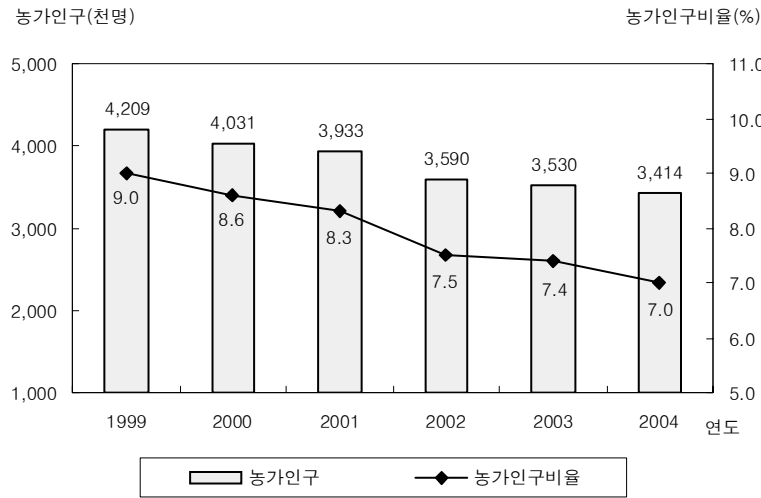
<보 기>

- ㄱ. 1999년에 비해 2003년에는 전체 범죄의 발생건수와 검거건수가 모두 증가하였는데, 증가폭은 발생건수가 검거건수보다 더 크다.
- ㄴ. 1999년 이후 전체 범죄의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1999년 대비 15 %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 ㄷ.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재산범죄의 발생건수와 강력범죄의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였다.
- ㄹ. 재산범죄에서 검거인원의 연도별 증감은 검거건수의 연도별 증감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 ㅁ. 1999년에 비해 2003년에는 전체 범죄의 발생건수에서 재산범죄의 발생건수가 차지하는 구성비의 증가폭이 강력범죄의 발생건수가 차지하는 구성비의 증가폭보다 더 크다.

- ① ㄱ, ㄷ
- ② ㄱ, ㅁ
- ③ ㄹ, ㅁ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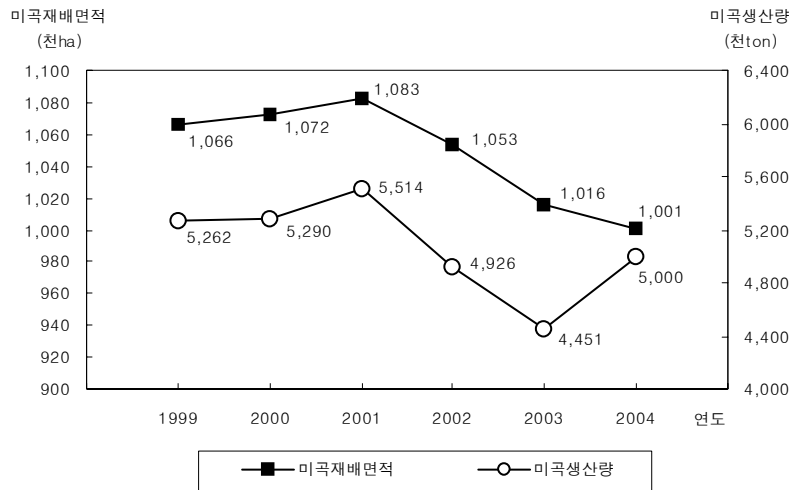
※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의 농가인구와 미곡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자료이다. [문 31 ~ 문 32]

<그림 1> 농가인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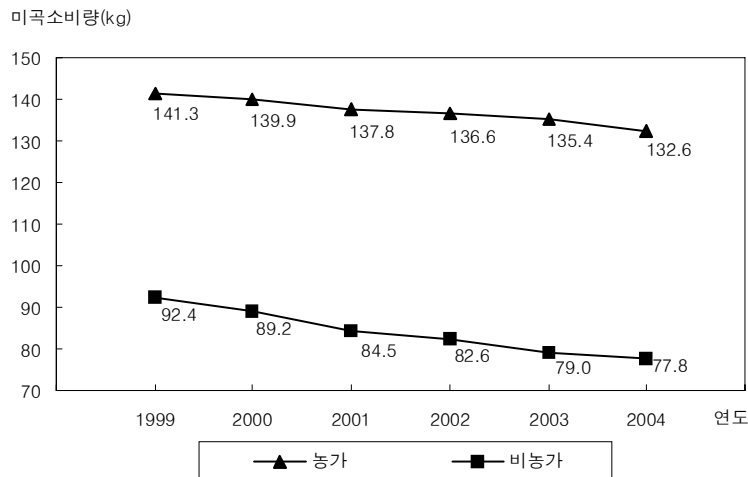


※ 농가인구비율 (%) = $\frac{\text{농가인구}}{\text{전체인구}} \times 100$

<그림 2> 미곡재배면적과 미곡생산량의 변화



<그림 3> 1인당 미곡소비량의 변화



문 31. 위 자료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 ㄱ. 2004년 농가인구비율은 1999년에 비해 약 22% 감소하였다.
- 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농가와 비농가 간 1인당 미곡 소비량의 차이는 매년 증가하였다.
- ㄷ.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농가인구 1인당 미곡재배면적과 농가인구 1인당 미곡생산량은 매년 증가하였다.
- ㄹ. 2001년 이후 재배면적당 미곡생산량은 매년 감소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문 32. 국민 1인당 미곡소비량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도출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2004년의 국민 1인당 미곡소비량을 구하면?

<계산식>

$$\begin{aligned} &\text{국민 1인당 미곡소비량(kg)} \\ &= \text{농가인구 1인당 미곡소비량} \times \frac{\text{농가인구}}{\text{전체인구}} \\ &\quad + \text{비농가인구 1인당 미곡소비량} \times \left[1 - \frac{\text{농가인구}}{\text{전체인구}} \right] \end{aligned}$$

- ① 약 81.6 kg
- ② 약 84.5 kg
- ③ 약 95.8 kg
- ④ 약 96.8 kg
- ⑤ 약 128.7 kg

문 33. 다음 <표>는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동향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1> 전국 경제활동 동향
(단위: 천명)

구분 연도	만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인구	취업자	실업자	
1995	33,659	20,845	20,414	431	12,814
2004	37,717	23,370	22,557	813	14,347

<표 2> 농가 경제활동 동향
(단위: 천명)

구분 연도	만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인구	취업률(%)	실업률(%)	
1995	3,758	2,702	99.4	0.6	1,056
2004	2,872	2,150	99.0	1.0	722

※ 1) 만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성되고,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됨.

2) $\text{취업률(}\%) = \frac{\text{취업자 수}}{\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 수}}{\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text{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만 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보 기>

- ㄱ. 전국 실업률은 1995년보다 2004년이 높다.
- ㄴ. 농가 취업자 수는 1995년보다 2004년이 적다.
- ㄷ. 2004년에는 농가 경제활동참가율이 전국 경제활동참가율보다 낮다.
- ㄹ. 1995년과 2004년 사이에 전국 취업자 수의 증가율이 만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보다 높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문 34. 다음 <표>는 A ~ G 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1> 수거된 재활용품의 유형별 비율
(단위: %)

지역 유형	A	B	C	D	E	F	G
종이류	70.6	58.2	25.0	40.4	19.0	26.1	25.5
병류	9.9	6.8	6.5	21.6	44.7	11.6	17.4
고철류	8.3	25.7	58.1	13.8	24.8	11.9	25.9
캔류	2.7	2.6	1.7	6.8	4.4	4.5	7.9
플라스틱류	6.2	5.0	3.2	11.4	5.5	6.9	8.3
기타	2.3	1.7	5.5	6.0	1.6	39.0	15.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 재활용품 수거량과 인구특성

지 역	A	B	C	D	E	F	G
항 목							
재활용품 수거량(톤/일)	88.8	81.8	70.8	62.9	45.3	21.5	21.0
1인당 재활용품 수거량(g/일)	328.1	375.8	362.5	252.8	323.7	244.4	232.9
인구(천명)	270.6	217.7	195.4	248.7	140.0	87.8	90.0
인구밀도(명/km ²)	970.0	664.6	584.0	681.4	415.6	161.0	118.6
1차산업 인구구성비(%)	6.5	5.7	13.3	8.4	14.3	37.9	42.0
2차산업 인구구성비(%)	21.6	14.3	23.9	23.6	15.4	11.4	13.8
3차산업 인구구성비(%)	71.9	80.0	62.8	68.0	70.3	50.7	44.2

<보 기>

- ㄱ. 2차산업 인구구성비가 높은 지역일수록 수거된 재활용품 중 고철류 비율이 높다.
- ㄴ. 3차산업 인구구성비가 높은 지역일수록 재활용품 수거량이 많다.
- ㄷ. 인구밀도가 높은 상위 3개 지역과 수거된 재활용품 중 종이류 비율이 높은 상위 3개 지역은 동일하다.
- ㄹ. 1인당 재활용품 수거량이 가장 적은 지역은 수거된 재활용품 중 종이류 비율이 가장 높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문 35. 다음 <표>는 법령에 근거한 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과 신고자별 보상대상가액 사례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1> 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7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3천8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5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1억1천3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3 %
40억원 초과	1억7천3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2 %

- ※ 1) 보상금 지급은 보상대상가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함.
 2)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음.

<표 2> 신고자별 보상대상가액 사례

신고자	공직자 여부	보상대상가액
A	예	8억원
B	예	21억원
C	예	4억원
D	아니요	6억원
E	아니요	2억원

<보 기>

- ㄱ.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보상금액은 E가 받을 수 있는 최대보상금액의 3배 이상이다.
 ㄴ. B가 받을 수 있는 최대보상금액과 최소보상금액의 차이는 6,000만원 이상이다.
 ㄷ. C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이 5명의 신고자 가운데 가장 적을 수 있다.
 ㄹ. B가 받을 수 있는 최대보상금액은 다른 4명의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보상금액의 합계보다 적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ㄱ, ㄹ

④ ㄴ, ㄷ
- ⑤ ㄴ, ㄹ

문 36. 다음 <표>는 선박종류별 선박수와 해양사고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 선박종류별 선박수와 해양사고

(단위 : 척, %)

구분 선박 연도	선박 종류	선박수	해양사고 (사고율)										
				충돌	접촉	좌초	전복	화재	침몰	기관손상	조난	인명사상	기타
1998	전체	95,903	936 (1.0)	295	8	77	14	69	87	242	48	8	88
1999	전체	101,307	1,041 (1.0)	356	2	69	29	67	95	269	24	14	116
	여객선	171	15 (8.8)	4	-	-	-	1	-	5	-	2	3
	화물선	696	97 (13.9)	63	1	14	4	2	-	6	1	-	6
	유조선	647	24 (3.7)	17	-	1	-	1	-	2	-	-	3
	어선	94,852	781 (0.8)	203	-	49	19	58	76	250	19	8	99
	예선	1,071	41 (3.8)	13	1	2	3	4	8	5	2	1	2
	기타	3,870	83 (2.1)	56	-	3	3	1	11	1	2	3	3

- ※ 사고율은 선박종류별 선박수 대비 해양사고의 비율임.
- ① 1998년에 비해 1999년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해양사고는 기관손상사고이다.
 ② 사고율이 가장 높은 선박의 종류는 화물선이고, 어선의 경우에는 사고율이 전체 사고율보다 낮았다.
 ③ 1999년에 가장 많이 일어난 해양사고는 충돌사고(34.2 %)이고, 그 다음이 기관손상사고(25.8 %)이다.
 ④ 1999년 해양사고는 전년대비 10 % 이상 증가한 1,041척이 발생했는데, 이 중 어선의 해양사고가 781척으로 전체사고의 약 75 %를 차지하였다.
 ⑤ 화물선과 유조선은 해당 선박종류의 해양사고 중 충돌사고의 비율이 각각 60 %를 넘었다.

문 37. 다음 <제시문>은 A 여론조사기관이 20대 이상 여론주도층 50명을 대상으로 중요한 사건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이 중에서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반드시 두 개씩 선택하게 한 후 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제시문>

연령별로 본 중요 사건에 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은 전체응답수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이 항목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는 20대가 12%, 30대가 20%, 40대가 28%, 50대 이상이 40%로 나타났다.

서울올림픽개최는 전체응답수의 24%를 차지하고 있고, 이 항목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는 20대가 37.5%, 30대가 25%, 40대가 25%, 50대 이상이 12.5%로 나타났다. 그리고 4·19혁명과 광주민주화운동 및 월드컵개최는 각각 전체응답수의 21%, 20%, 10%를 차지하고 있다.

<보 기>

ㄱ. 월드컵개최를 중요한 사건이라고 선택한 응답자는 10명이다.

ㄴ. 한국전쟁을 중요한 사건이라고 선택한 50대 이상의 응답자는 10명이다.

ㄷ. 응답자들이 중요한 사건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사건은 한국전쟁이다.

- ① ㄱ

② ㄱ, ㄴ
- ③ ㄱ, ㄷ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문 38. 다음 <표>는 가구주의 거주지역별 혼인상태와 연령대 분포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1> 가구주의 거주지역별 혼인상태

(단위 : %)

구분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도시	농촌	전체	도시	농촌	전체
연도	미혼	45	26	37	17.5	4.9	13.1
	결혼	93.9	95.0	94.4	30.5	23.7	28.1
	사별	1.2	2.1	1.6	47.4	69.2	55.0
	이혼	0.4	0.3	0.3	4.6	2.2	3.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90	미혼	6.9	3.5	6.0	26.0	6.0	20.5
	결혼	90.9	92.9	91.4	20.0	10.6	17.4
	사별	1.4	2.8	1.8	46.7	81.1	56.2
	이혼	0.8	0.8	0.8	7.3	2.3	5.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0	미혼	8.5	5.0	7.8	26.0	7.1	21.4
	결혼	87.8	90.3	88.3	20.0	10.2	17.5
	사별	1.4	2.9	1.7	40.1	78.0	49.4
	이혼	2.3	1.8	2.2	13.9	4.7	11.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 가구주의 거주지역별 연령대 분포

(단위 : %)

구분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도시	농촌	전체	도시	농촌	전체
연도	15 ~ 24세	3.9	2.4	3.3	15.5	4.8	11.8
	25 ~ 34세	32.8	19.4	27.0	14.3	7.8	12.0
	35 ~ 44세	32.3	27.6	30.3	22.4	20.2	21.6
	45 ~ 54세	18.5	24.3	21.2	25.5	32.1	27.8
	55 ~ 64세	9.0	17.1	12.4	15.7	23.1	18.4
	65세 이상	3.5	9.2	5.8	6.6	12.0	8.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90	15 ~ 24세	2.8	1.2	2.4	14.7	3.6	11.7
	25 ~ 34세	32.0	18.0	24.8	16.0	4.9	12.9
	35 ~ 44세	30.4	22.0	31.3	18.4	8.8	15.8
	45 ~ 54세	21.0	24.5	20.0	20.5	19.7	20.3
	55 ~ 64세	9.6	20.3	14.1	18.2	31.1	21.7
	65세 이상	4.2	14.0	7.4	12.2	31.9	17.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0	15 ~ 24세	1.9	1.3	1.8	10.2	3.0	8.4
	25 ~ 34세	29.8	14.1	20.2	16.5	4.6	13.6
	35 ~ 44세	32.3	25.2	32.2	21.2	8.5	18.1
	45 ~ 54세	20.4	19.9	21.8	19.7	12.3	17.9
	55 ~ 64세	10.1	20.3	14.7	15.3	23.6	17.3
	65세 이상	5.5	19.2	9.3	17.1	48.0	24.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보 기>

ㄱ. 55세 이상 인구에서는 연도와 지역에 관계없이 여성가구의 비율이 남성가구의 비율보다 항상 높다.

ㄴ. 1980년에 비해 2000년에는 도시 여성가구주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낮아졌으나, 농촌 여성가구주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높아졌다.

ㄷ.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결혼 상태인 남성가구주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이혼 상태인 남성가구주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ㄹ. 2000년의 경우, 사별 상태인 농촌 여성가구주 수는 사별 상태인 도시 여성가구주 수보다 많다.

ㅁ.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남성가구의 혼인상태 중 결혼의 비율은 계속 감소한 반면, 미혼, 사별 및 이혼의 비율은 모두 계속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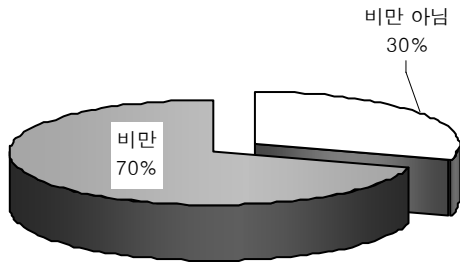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 ③ ㄱ, ㄹ, 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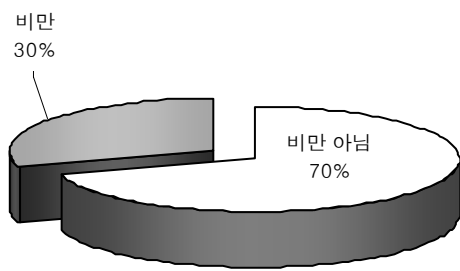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문 39. 다음 <그림>은 A도시 남성의 성인병과 비만에 대한 것이다. A도시 남성 가운데 20%가 성인병이 있다고 하면, 이 도시에서 비만인 남성 가운데 성인병이 있는 남성의 비율은?

<그림 1> 성인병이 있는 남성의 비만 여부



<그림 2> 성인병이 없는 남성의 비만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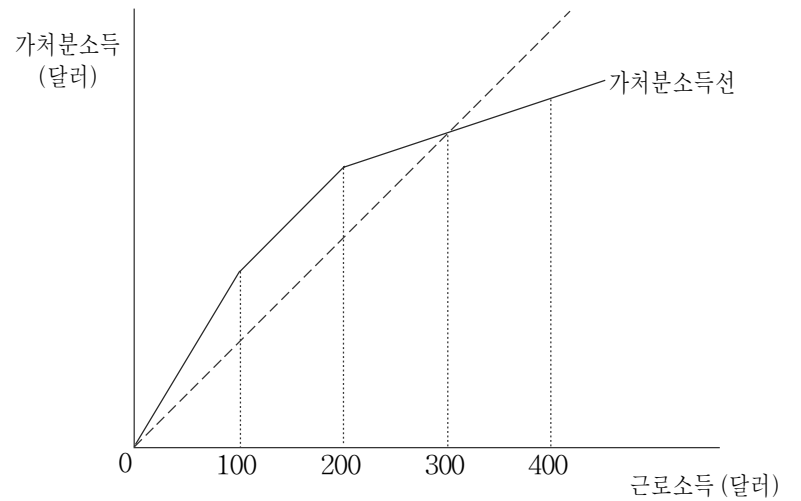
- | | |
|---------|---------|
| ① 약 21% | ② 약 30% |
| ③ 약 37% | ④ 약 53% |
| ⑤ 약 70% | |

문 40. 다음 <그림>은 아래 <제시문>의 내용을 기초로 근로소득 변동에 따른 가처분소득(可處分所得)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시문>

A국가는 근로소득이 300달러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300달러 미만이어서 보조금을 받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은 근로소득에 보조금을 더한 금액이 된다. 한편, 근로소득이 300달러를 초과하는 근로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하며, 이 경우 가처분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그림> 근로소득 변동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변화



- ※ 1) 점선은 보조금이나 세금이 없는 경우에 가처분소득이 근로소득과 일치하는 선으로, 기울기는 1임.
 2) 100달러 이상 200달러 미만 구간에서 가처분소득선의 기울기는 1임.
- ① 100달러 미만 구간에서는 근로소득 1달러 증가시 가처분소득의 증가액이 1달러보다 크다.
 ② 100달러 이상 200달러 미만 구간에서 근로소득과 보조금은 정비례 관계이다.
 ③ 200달러 이상 300달러 미만 구간에서는 근로소득 증가에 비례하여 보조금은 감소한다.
 ④ 근로소득이 250달러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150달러인 근로자보다 보조금이 적다.
 ⑤ 근로소득이 400달러인 근로자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